

“사물 인터넷으로 통하는 미래, 우리가 주역!”



사물인터넷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주요 산업으로 주목 받는 분야다.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시대의 기반이 되는 RFID 기술의 선두를 달리는 국내 기업이 있어 화제다. 바로 RFID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파이칩스다.

에디터 홍혜원



세계 시장 선도하는 RFID 리더 기업

대전 유성구에 자리한 파이칩스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태그를 생산하는 RFID 기술 기업이다. 지난 2009년에는 1세대 RFID 리더 칩인 PR9000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KAIST 전자공학과 출신의 고진호 대표이사를 필두로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세대 제품인 PR9200을 개발해 전 세계에 스마트 태그 기술을 보급한다. 지난해 매출은 약 20억원.

“2002년 가을, 대전의 작은 연구실에서 벤처 창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에 전자공학도 엔지니어 4명이 창립 멤버였죠.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의 전문기업이 많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비전을 두고 그동안 본 적 없는 획기적인 IT 환경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RFID는 물품관리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바코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인식 기술로 꼽힌다. 제품에 붙이는 RFID 태그에는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해 정보 시스템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

“매출 중 절반이 해외 수출 건입니다. 주로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와 달리 모바일 기기와 가전기기에까지 응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저비용, 고성능 구조의 제품을 구현했다는 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파이칩스는 2012년 국제청의 주류 유통정보 시스템 사업의 ‘주류 진품 확인 기기’에 리더칩 기술을 저가에 공급하면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 태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다.

“소비자가 직접 태그를 이용해 그 자리에서 술의 진품 여부와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제품을 10만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죠. 특히 2012년부터는 RFID 부품은 물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초소형 리더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는 등 RFID 분야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그게 주효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현재 RFID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한 파이칩스지만, 어려운 시기도 분명 있었다. 2008년, RFID 시장 성장 속도가 예상과 달리 둔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근거리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에 밀려 모바일 RFID 리더칩 기술의 선구자라는 명성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긴 결과, 세계 최대의 RFID 칩 공급업체인 NXP 반도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모바일 태그 시장에 선두 주자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열리고 있는 RFID 박람회에 가보면, 우리가 2~3년 전에 개발했던 아이템들이 이제서야 각광받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동안 한국 RFID 시장이 너무 앞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RFID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RFID 시장 확대가 곧 기회

지난해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자라(ZARA)에서는 매장 내 의류에 RFID 태그를 적용해 재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RFID 기술이 확산될수록 수천만 개의 태그가 소요되고, 그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리더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확장되면서, 파이칩스의 성장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이다.

“비록 속도는 더더욱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RFID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무한한 성장과 응용이 가능한 유망한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과 혁신에 나서서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사물인터넷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울림**

MINI INTERVIEW



파이칩스 **고진호** 대표

Q. RFID 기술에 있어서 파이칩스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A. 파이칩스는 세계 최초로 RFID 칩을 시스템온칩(System on Chip, 이하 SoC)으로 개발해 이 분야 기술 리더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SoC는 반도체칩 하나에 다양한 기술이 집적화된 것으로, 경쟁사 제품이 RF송수신기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파이칩스 제품은 RF송수신기와 MCU, 플래시 메모리를 모두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외부 부품 수가 매우 적고,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모바일 및 휴대성에서 큰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Q. 회사의 어려운 고비를 넘긴 노하우가 궁금하다

A. 2008년이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RFID 시장에 뛰어 들어서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RFID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크기가 작고 성장 속도가 늦어 약 1년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조금해지니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회사 임직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시장의 성장 속도는 많이 더디지만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다.

Q. 팹리스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A. 팹리스 기업은 종합 반도체 기업과 달리, 생산 설비가 없는 대신 하드웨어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한다. 그만큼 R&D에 역량을 집약시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직원 중 대다수가 연구개발 인력들이라고 보면 된다. 2013년에는 R&D센터를 판교에 설립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Q. 현재 반도체 시장의 기회 및 위기는 어떤 요소인지

A. 팹리스 산업은 첨단 기술은 물론 자본이나 노동집약적인 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RFID,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P(지적) 재산권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 기술기업에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끊임 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묘안이 필요한 때다.